

‘高·高’ 속 생활형 부채 상승… 채무조정액 60% 40·50대

〈고물가·고금리〉

신복위, 작년 채무조정액 10.3조 40·50대 2개 연령대서 60조 차지 주담대·사업자 대출 등 직접 영향 생계비 급증 20·30대 재무여력 약화 “취약차주 중심 선제적 관리 필요”

지난해 채무조정 금액의 약 60%가 40·5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채무조정도 빠르게 늘면서 금융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소득이 줄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금액은 총 10조3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대가 3조15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조88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경제활동과 소비의 중심인 이른바 ‘허리세대’에 채무 부담이 집중된 모습이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 역시 40·50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연령대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40·50대에 이어 청년층에서도 채무조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1년 1만3078명에서 지난해 2만1348명으로 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역시 2만4088명에서 4만1489명으로 70% 이상 늘었다.

전 연령대로 채무조정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생계비 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식비와 주거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상환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소득 기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를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채무 취약성이 더 빠르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라

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중은 약 25%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물가와 생활비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면서 가계의 재무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생활물가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23% 감소하던 것에서 같은해 12월 0.08%, 올해 1월 0.6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식품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0.71%→-0.12%→0.58%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물가와 금리

부담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채무조정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채무조정 증가 흐름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상환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40·50대는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 등 규모가 큰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청년층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비상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필수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 정상 상황이 어려운 차주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연체 확대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인 관리와 맞춤형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l115@metroseoul.co.kr metro

‘분상제’ 강남 아파트, 줄줄이 청약 돌입

아크로드 서초, 오티에르 반포 총 1412가구 규모… 20일 청약 반포디에이치클래스 분양 미정

서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서울에서도 핵심입지로 꼽히는 데다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7일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드 서초’와 신반포 22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반포’가 나란히 오는 2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에 들어서는 아크로드 서초는 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당초 작년 10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로 미뤄졌다.

단지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드’가 적용됐으며,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서이초가 단지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했다.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다.

잠원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반포는 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단지다.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용 44㎡부터 115㎡까지 다양한 면적대가 공급된다.

단지는 반포역(7호선), 고속터미널역(9호선), 잠원역(3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신세계백화점과 서울성모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를 크게 밀돌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는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티’로 3.3㎡당 8484만원이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포동과 잠원동의 3.3㎡당 평균가는 각각 1억3093만원, 1억522만원이다.

다만 두 단지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다. 아크로드 서초가 전용 59㎡ 56가구, 오티에르 반포는 전용 44~115㎡ 86가구다.

대규모 물량은 반포동에서 반포주공 1·2·4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디에이치클래스’에서 나올 예정이다. 전체 5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 분양 물량이 1800가구 안팎에 달한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분양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IBK기업은행,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 운영

혁신기업 자금수요 신속 대응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분야 등 혁신기업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

해 신설됐다. 여신 심사를 위한 전문 심사역, 공인회계사, 애널리스트 등 전문 인력 40명으로 구성돼 자금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3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 체계를 도입하고 전문 기술 평가위원의 컨설팅 결과를 심사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가 미흡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센터에서 부절되거나 심사가 지연된 여신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본부 재검토 프로세스’를 운영해 기술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담심사반 가동으로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신용대출,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 대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출이동서비스는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중심으

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개인사업자이며, 1억원 이내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등 일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액 대환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에 시민응원 래핑

빅히트 뮤직 협업… 희망 메시지

교보생명은 17일 빅히트 뮤직과 협업해 서울 종로구 분사 사옥 외벽에 시민들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하는 초대형 래핑을 선보였다.

이번에 설치한 래핑의 문구는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본인 코리아, 플레이 포 더 월드(Born in Korea, Play for the World)’다. 세계를 무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방탄소년단 처럼, 모든 시민들이 도전하고 노력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봄이 되면 새 생명이 다시 자라나듯이, 기적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광화문글판 봄편 문안인 ‘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디자인은 태극기 사래인 건곤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 초대형 래핑이 설치돼 있다. /교보생명

감리에서 모양을 따왔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디자인 요소를 서체, 색상 반영했다. 전통 민화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광화문글판 봄편과 함께 광화문 네거리에 한국적 아름다움을 전달해 K-컬처를 세계에 알린다.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과 방탄소년단의 만남을 발판 삼아 K-컬처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gh471@